

무주산골영화제 막 올랐다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주최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 주관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 (재)무주산골문화재단)가 21일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에서 막을 올렸다.

영화배우 박철민 씨와 김혜나 씨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에는 무주산골영화제 황정수 조직위원장(무주군수)과 유기하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 부산기장군 오규석 군수,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 전주 MBC 송기원 대표, 태권도진흥재단 정국현 사무총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으며 개막작 <앗싸 필름 심청>의 감독 김태용, 윤세영, 한국장편영화감독부 분인 '창' 색선의 심사위원 달시 파켓(들꽃영화상 집행위원장), 원동연(리얼라이프피쳐스 대표), 정재은(《말하는 건축가》 감독)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또 페스티벌 프렌즈 황찬성, 박규영 배우를 비롯한 <엄마의 공책> 김성호 감독과 주연 배우 이주실, <아, 황야>의 배우 양익준 외 <한강에게>, <살아 남은 아이>, <이월>, <겨울밤에>, <레터스> 등 무주산골영화제 상영작들의 감독과 출연 배우들이 참석했으며 배창호(울주세계산악영화제 집행위원장), 김동원(송환) 감독 등 영화계 주요 인사들과 일반 관람객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개막식을 빛냈다.

개막공연에서는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아티스트 허립과 조정치, 박재정이 무대에 올라 감미로운 음악으로 감동을 선사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휴양영화제, 색다른 감동을 선사하는 낭만영화제,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를 시작한다"는 황정수 조직위원장(무주군수)의 개막 선언으로 시작된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의 개막작 <AASSA, 필름 심청>이



21일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에서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식이 열렸다. 사진은 개막작 '앗싸 필름 심청' 스틸컷.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서 개막... 25일까지 6개 상영관서 열람, 울림, 어울림의 여정 27개국 77편 영화, 공연 등 행사 다채

상영했다.

<AASSA, 필름 심청>은 신상욱 감독의 1972년 작 <호녀심청>을 바탕으로 김태용, 윤세영 감독이 연출을 맡고, 아시안 일렉트로 펑크밴드 '앗싸 AASSA' 멤버 성기완이 음악 감독을 맡아 재탄생시킨 퓨전 음악극으로, 지난 5년간 한국 고전 영화를 다양한 장르의 현대음악과 결합해 새로운 형식으로 재창조하고 있는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작 전통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주최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 주관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 (재)무주산골문화재단)는 '시네마 리플레이 : 좋은 영화 다시보기'를 주제로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무주읍 예천문화관과 등나무운동장, 덕유산국립공원, 무주전통생활체험관, 무주전문문화의 집, 향로

산자연휴양림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한국영화장편영화 경쟁부문인 '창' 색선에서는 동시대 최신 한국독립영화를, '판' 색선에서는 국내의 최신영화와 고전영화를, '닥'과 '술' 색선에서는 영화와 라이브 연주, 심야상영을 즐길 수 있다. 마을로 가는 영화관 '길' 색선에서는 향로산 자연휴양림 '별반소풍(별자리 찾기 + 영화상영)'을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이병률, 정인, 에디킵, 데이브레이크 등의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유클의 숲(영화+음악+대화)을 비롯해 가족 프로그램과 산골미술관, 산골책방, 산골공방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관람료 없이 무료로 즐기는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 관련 정보들은 홈페이지(www.mjff.or.kr)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그동안의 헌신 감사합니다”

진안군청 2018년 상반기 퇴임식

2018 진안군청 상반기 퇴임식이 21일 동료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퇴임자는 박성희(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박정현(비서실장), 이정열(전략사업실장), 서매순(행정지원과), 전형욱(기획실장), 한갈철(동향면 민원복지팀장) 등 6명이다.

퇴임식에 참여한 이항로 군수와 동료 공무원들은 오랜 시간 진안군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퇴임하는 퇴임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서 퇴임자들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후배공무원들에게 남기는 영상메시지가 상영되었고, 후배공무원들이 퇴임자에게 전하는 축하영상 메시지가 이어졌다.

또 새내기 공무원들이 명예롭게 퇴임하는 선배공무원들을 축하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이항로 군수는 “퇴임하시는 선배님들의 땀과 눈물, 고뇌가 있었기에 군민이 좀 더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좋아졌다”며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진안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난 21일 장수군 번암면 죽림정사에서는 백용성조사 탄생 154주기 탄생기념 및 행적비 제막식이 죽림정사 교육관에서 열렸다.



백용성조사 탄생154주기

탄생기념 및 행적비 제막식 개최

장수군 번암면 죽림정사에서는 백용성조사 탄생 154주기 탄생기념 및 행적비 제막식이 21일 죽림정사 교육관에서 600여명의 제자와 관내기관단체장, 신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용성조사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용성조사의 독립정신과 불교중흥의 의지를 새기고 유훈실현을 위해 애쓰신 분들의 공덕을 기리는 기념비 제막식을 병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정영수 군수당선자와 박용근 도의원, 김용문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부는 다례제와 용성진종조사 행차, 법륜스님의 환영사와 축사로 이어져 제2부에서는 명법사 합창단의 축사와 커팅식, 기념촬영과 불심도문 큰스님의 인사말씀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는 사)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 기념 사업회(이사장 법륜)가 주최하고 정토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행사를 주관한 법륜 죽림정사 주

지스님은 “오늘 백용성조사 탄생 154주기를 맞아 그동안 애써주시신 분들의 공덕에 감사드리며 백용성조사 교육관에서 600여명의 제자와 관내기관단체장, 신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말했다.

도문 죽림정사 회주스님은 법문을 통해 “나라의 독립과 불교 대중화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용성스님의 탄생일을 맞아 그 의미를 새기고 이국 죽림정사가 민족통일과 민족의 정기를 바로 하는 성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백용성조사는 1919년 3.1독립만세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명으로 1864년 번암면 죽림마을에서 출생하였고 14세에 남원 덕림암으로 출가하여 3.1운동 때 만해 한용운과 함께 불교계를 대표해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

이 때문에 1년6개월간 옥고를 치른 이후에도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며 빼앗긴 땅과 글을 찾고 불경을 대중화하기 위해 불교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도 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농업용 드론 방제 작업 대행 시동 본격화

진안군, 인건비 부담 해소·노동력 절감 도모

진안군은 농업용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을 활용해 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을 도모한다.

군은 21일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 드론을 활용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균적으로 3명이 4시간 일할 농사일을 드론으로는 단 10분(면적 환산 3,300㎡)이면 가능해 작물보호제 살포나 파종, 시비 등의 농작업에 쓰이면

인건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벼농사의 경우 경운, 정지, 이앙, 수확 과정에 98% 기계화가 이루어졌지만 방제 부분에서는 17%에 그치고 있어 수도작 병해충 방제나 예찰 등에 드론 작업 대행을 높이거나 타 작물에도 드론 활용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진안군은 지난해 농업용 드론 2대를 구입했으며, 농작업 대행단원 3

명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와 옥수수 포장 제조제 살포 대행 작업이 한창이다. 박운면 이용규씨는 “농업 분야에서도 드론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농업인들도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준비해 진안군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병해충 방제작업 뿐만 아니라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농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감함을 한방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호 | 750ml 1ea/12% |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호 | 375ml 5ea/13% | GIFT SET 6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호 |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nda Wine

TEL : 063-684-9990
www.gangsanwine.com

지역 매아리

무주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실시

무주경찰서(서장 윤종섭)는 21일 무주경찰서 교통 미니공원에서 무주군 읍내에 위치한 소화어린이집 20명을 대상으로 교통미니공원체험을 실시하였다.

어린이 교통미니공원 교육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습관이 유년기부터 몸에 배 수 있도록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 할 계획이다.

이번 체험활동에서는 교통안전 학습판을 활용한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법 등 교통안전사항 교육, 안전한 보행방법, 순찰차 탑승, 무전기 사용 등을 실시했으며, 112상황실에서는 어린이들이 위급상황 시 손쉽게 112 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 제작된 '올바른 112 신고방법' 동영상을 시청하며 긴급상황 대처방법을 교육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도시재생대학 개강

장수군은 지난 20일 장수능협 2층 회의실에서 장수군 도시재생대학 개강을 가졌다.

이날 바쁜 와중에도 40여명의 수강생이 참석하였고, 참석자로는 10대 청소년을 비롯하여 학부모, 기존 장수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장수지역활력센터, 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 장수 YMCA 등 다양한 계층과 단체로 구성됐다.

이날은 개강 첫날로 서로 인사하며 팀별 오리엔테이션 활동을 가졌고, 교육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도시재생대학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도시회복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을 도모하는 주민 역량 교육으로 6월~8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농업인·부녀자대상

농기계 안전 이용교육 실시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원)는 농작업 기계화 확대에 따른 농업기계의 이용률 향상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농업기계 안전이용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며 농업인·부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영농에 필요한 농용굴삭기, 트랙터, SS기, 관리기 등 농기계 작동법과 보조장비의 안전사용요령, 기본적인 정비·수리방법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부녀자를 대상으로 운전 미숙과 부주의로 발생하기 쉬운 농업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장수=고관호 기자